

April 30 지푸라기를 붙잡는 믿음

• 예레미야 29:11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에라도 의지하고 싶은 절박하고도 다급한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는 힘을 빼고 구조자에게 몸을 맡겨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무지와 유한함과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내 힘으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께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해야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하고 원망할 것뿐이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고, 바라며 소망하게 됩니다. 지푸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렐 29:11). 주의 뜻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붙든 것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망망대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결국은 지푸라기였음을 거듭 확인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지푸라기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했습니다. 재앙처럼 보여도 그것이 평안이라 말씀하시면 순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순종의 끝에 주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합니까?

- ① 나는 어떤 지푸라기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 ② 나는 쉬운 길을 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택합니까?